



[농지은행사업 기획보도②] 농민의 자존감과 농지를 지키는 힘, '경영회생지원'에 길이 있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위기 농가에 현실적 지원 -
"영암지사 현장 성과, 600억 자금 지원 및 100여 건 환매 계약"

김유인 | 기사입력 : 2026/06/30 [14:54:00]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전경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최근 우리 농촌이 마주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가격 급등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상수(常數)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영농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 첨단 기계화에 필요한 초기 투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농가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최근 농가부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농업을 짊어질 청년농업인들마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영농을 시작하는 상황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농업인의 부채 문제는 단순히 한 농가의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농지를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농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농촌 공동체의 급격한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 기반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민에게 농지는 단순한 경제적 재산 가치를 넘어 삶의 터전이자 대를 이어온 생산의 근간이다. 한번 농촌을 떠난 농업 인력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영농을 중단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일수록 공공제도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농가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구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가는 그 매각 대금으로 연체된 부채를 신속하게 상환하여 신용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농지를 매각한 후에도 타인에게 경작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농가가 최장 10년간 장기 임대 형태로 해당 농지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경작자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다.



▲ 청년농, 후계농 역량강화 교육에서 농지은행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 가치는 단순한 일회성 금융 지원을 넘어 '농민의 자존감과 농지를 함께 지키는 회생'에 있다. 농업인은 익숙한 영농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며 소득을 창출하고, 경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 환매권을 통해 매각했던 농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농가의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모든 필지를 한 번에 사지 않고 일부 필지만 먼저 환매하거나,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장치는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던 농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파산을 막고 가정을 지키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도 매우 가시적이다. 일례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역 내 160여 위기 농가에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도왔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약 100여 건의 환매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며 농업인들이 소중한 일터였던 고향 땅을 되찾고 완전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사는 농지은행의 다양한 맞춤형 연계 사업을 통해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 보장은 물론,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기반 확대와 농촌의 성공적인 세대교체에도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훌륭한 제도가 현장에서 더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활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농가에서는 자식 같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한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신청 시기를 미루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곤 한다. 그러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실패한 농가를 구제하는 사후 처방전이 아니라,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 영양제이자 체질 개선책이다. 공사 역시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와 밀착 맞춤형 상담을 더욱 확대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농가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고객에게 경영회생사업 등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이자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다. 위기에 직면한 농민이 농지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국가적 과제다. 앞으로도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 되어, 우리 농촌의 활기찬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디딤
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암군민일보 이 기사 주소 : <http://www.xn--6e0bx9yjva78vvyac9d.kr/6842>
